

24개 마을 821세대 수도물 못 마시고 세균에 취약한 지하수 생활

광주 오지마을은 아직도 ‘水難시대’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집에서 물 걱정 없이 마음껏 씻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지난 3일 찾아간 광주시 광산구 오기동 상정마을은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동네지만, 수도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마을 37가구 80여명의 주민은 지하수 관정을 뚫고 물을 끌어올려 생활하고 있다.

이마저도 해마다 겨울에는 쫘쫘 얼어서, 여름에는 가뭄 때문에 쓰는 날보다 못 쓰는 날이 많을 정도다. 이날 마을 쉼터에서 만난 박임순(86) 할머니는 꽃다운 스무 살 때 남편을 만나 60년 이상 이 마을에서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수도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정마을을 떠나고 싶어도 사정이 허락치 않고 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면서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박 할머니는 “지하수로 생활하는데, 기름 같은 이물질 등이 섞여있어 오래전부터 생수를 사 먹고 있다”면서 “지하수를 1~2일만 보관하면 물에 초록색 이끼 등이 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박정훈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세균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마을에 사는 다른 주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박대규 (72)통장은 “행정기관에선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하던데, 상정마을은 예외인 듯하다”면서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 아직도 수도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해 수도관이 설치된 광산구 신평, 동촌, 송계마을에서는 각 가정마다

겨울 한파에 쫘쫘 얼어 사용 못하고 생수 사먹기 일쑤
市 예산 부족·설치비 부담에 상수도 공급 안돼 불편



광주시 광산구 상정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지하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설치한 모터펌프.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담해야하는 수도관 설치비 89만원을 못내 아직도 지하수로 생활하는 주민도 있다.

주민들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89만 원은커녕 8만9000원도 없다”면서 “수도관을 설치할 여력이 안돼 지하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 상수도 보급사업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어섰지만, 도심 속 24개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직도 수도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상수도 보급을 미루고 있으며, 상수도를 보급하더라도 수도관 인입(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수도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

려야할 기초생활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전체 상수도 공급률은 99.82%이다. 상정마을처럼 수도물 미공급 지역은 24곳 821세대, 1785명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광산구 15곳 북구 9곳이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폭염과 가뭄으로 지하수조차도 고갈돼 고통을 겪었다.

마을 주민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 설치한 개인 관정(지하수 시설)의 수질도 최악이다. 지난해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의 지하수에서 식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상정마을은 광주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상수도를 개설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인입 비용과 수도 요금의 부담 때문이다.

광주시가 마을 입구까지 상수도를 설치했을 경우 각 가정별 인입 비용은 일반관(13mm) 1~100m미터 기준으로 89만5000원이다. 이 때문에 마을입구까지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수도관 설치를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박하성 광주시상수도본부 급수과장은 “예산이 부족해 모든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지 못했다”면서 “올해까지 6개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무등산을 제외한 광주 전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917년 광주시 동구 중심사 인근에 21만원(당시 기준)의 예산을 들여 제1수원지 공사를 시작, 1920년 5월 준공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임은정 검사 “나도 성추행 당했다”

“성매매 전담 부장검사가 성매매” 폭로도

“인사 불이익 받아 광주지검 전보”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내 후진적 조직문화를 비판해 온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에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냈다. 임 검사는 검찰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광주 출신 서지현 검사를 적극 지지했으며,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15년 전 한 선배검사로 부터 강제 키스를 당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글에서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인 한 부장검사로 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굳이 아파트 1층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 내려더니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 하더라고요. 안이한 생각에 집에서 물 한 잔 드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드렸는데 갑자기 입안으로 들어오는 물결

한 혀에 술이 확 갇다”고 글에 썼다.

그는 추가 추행시도가 있었다면서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그 정신에 알려지면 검찰이 명한다든 생각밖에 안 들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임 검사는 2년 뒤인 2005년 부산지검 근무 시절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매매 전담부부장검사가 있었다는 폭로도 했다.

그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최한 저녁 자리에서 당시 성매매 전담 업무를 맡았던 부장은 2차 술자리 직후 성매매를 갔다”며 “상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 왜 검찰 착수를 안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런 피해 고발이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풍문이 돌면서 2007년 광주지검으로 발령 난 직후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판부에 배치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주지검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공판을 맡았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주택 2층만 골라 턴 상습 절도범 검거

주인과 몸싸움 끝 붙잡혀

2층 주택만을 골라 턴 40대 남성이 집주인과의 몸싸움 끝에 붙잡혔다.

5일 광주북부경찰청은 새벽 시간 2층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로 소모(41)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다.

소씨는 지난 2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집주인 A(23)씨를 밀어 넘어뜨려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소씨는 방 안을 뒤지다 때마침 귀가한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친형을 깨워 신고를 요청했고 소씨를 붙잡기 위해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씨는 화분 등에 머리를 부딪쳐 이가 깨지고 머리가 5cm가량 찢기

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도 소씨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중 전과 5범인 소씨는 과거에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이번 사건과 같이 집주인에게 발각돼 검거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소씨는 경찰조사에서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체로 가난하고, 낮에 일을 많이 해 깊게 잠든다”며 2층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진술했다.

소씨는 광주의 다른 지역 2층 주택에서도 범행 6건을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서 소씨가 다치긴 했지만 A씨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으며 소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반아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불법 로또 도박 베트남인 등 7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로또 도박을 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베트남인 A(33)씨 등 7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매일 밤 베트남 현지 로또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마지막 두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에게 배팅 금액의 최고 70배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설 로또 도박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도박에 참여하게 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번호를 받고 계좌이체로 배팅 및

수익금 배당을 하는 수법으로 도박을 해왔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책에게 입금한 도박자금만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B(41)씨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억5000만원의 도박자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 운영 총책과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종병원 2명 또 숨져...사망자 43명으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2명이 5일 또 숨졌다.

이날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밀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정모(84)씨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사망했다.

폐렴 등으로 밀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 씨는 화재 이후 밀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왔다. 앞서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께는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입원해 치료 중이던 김모(86)씨가 숨졌다.

당초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으로 세종요양병원 3층에 입원해 있던 김 씨는 화

재 뒤 병원을 옮겨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등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시의 한 관계자는 “의사 검안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망자가 2명 더 늘어남에 따라 이번 참사 관련 사망자는 모두 43명이 됐다. 부상자는 149명으로, 총 사상자수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은 9명이고, 40대인 1명을 빼고는 대부분 80·90대 고령인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한파에 오갈 곳 없어 PC방서 무전취식



○...연일 계속되는 한파를 견디지 못한 40대가 추위를 피해 PC방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경찰서행.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2)씨는 지난 4일 자정께 광주시 북구의 한 PC방에서 10시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한 뒤 요금 1만 4300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추운 날씨에 오갈 곳이 없어 PC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정씨가 그동안 식당·술집 등에서 총 19차례나 무전취식을 했던 전과까지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추천) 무안콘도

무안 망운 리조트
광주에서 40분

최고물건
임대(월1,200만 가능)

토지 744평
건물 290평
(아파트형, 객실 13개)

경매일:2월6일

감정가 23억
최저가 12억8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2월초 개강)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화순군 도곡면 (무인텔)
감정가 38억7천 → 최저가1억4천 1천
②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가 32억2천2백 → 최저가 14억
토지:1105평 건물:1201평
③ 북구 문흥동 중흥아파트(24평)
감정가:1억3천3백 → 최저가:7천5백

[사무직 (여)경력 구할,]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토지:1004평 건물:750평 감정:3억2천4백 → 최저:2억2천	7) 남구 월산동 (근린주택) 감정:9천6백 → 최저9천6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3) 광산구 수원지구 (근린주택) 감정 7억2천 → 최저 7억2천	9) 광산구 수원동 (주차빌딩) 감정 9억3천 → 최저 6억5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1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임야) 토지:3306평 감정:3억1천 7백 → 최저:1억7천7백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 7백 → 최저:1억8천7백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⑦ 광산구 수원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② 서구 동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⑧ 서구 마록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③ 서구 동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④ 남구 진월동 한신아파트 (34평) 감정 1억9천5백 → 최저 1억 3천6백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⑤ 북구 운암산코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⑪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⑫ 광산구 박흥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

010-6670-9800 062)382-5500